

## 그림과 이야기



칸딘스키 '즉흥 19'(1911)

Min Seok Seo, 바실리 칸딘스키 즉흥 19, Pinterest, 2024.02.0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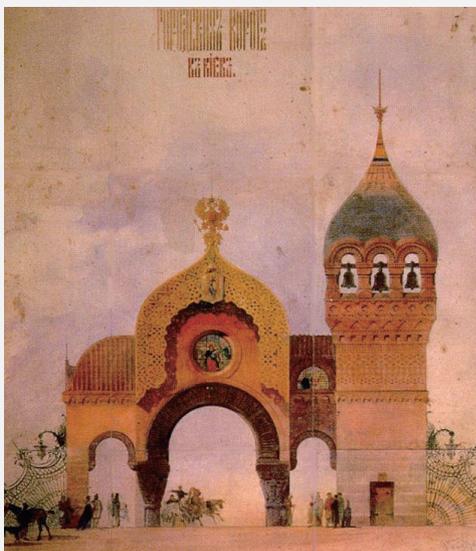
칸딘스키는 모스크바 공전극장에서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다. “바이올린의, 베이스의, 관악기의 깊은 울림,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빛깔을 보았다. 그것은 나의 눈앞에 있었다. 야성적이며, 거의 미친 것 같은 선이 눈앞에 그려졌다. 바그너가 나의 시간을 음악적으로 그렸다고 하는 표현을 나는 감히 사용하지 않겠다. 그러나 분명한 일은 예술이란 것은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힘찬 것이며, 회화는 음악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이었다.”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칸딘스키는 예술의 이론이나 제명에 음악과 관련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. 내부에서 솟아 나오는 감흥을 자유롭게 화면이 정착시키려 했다.



프리다 칼로 '비바 라 비다'(인생이여, 만세)

한가운데 둥근 수박이 통째로 놓여 있고, 그 주위로 저마다 달리 잘린 수박 여섯 덩어리가 모여 있다. 가운데 수박 껍질은 질푸르나, 그 오른쪽 수박은 노란 기운이 많아 흐릿하다. 반으로 자른 수박은 흰 섬유질을 따라 접점이 박힌 씨앗이 영롱하고 속살이 새빨간 걸 보니 폭 익어 무르게 생겼는데, 꽃처럼 자른 수박은 씨가 없이 부드러워 영글기 직전이었던 모양이다. 수박조차도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김새와 숙성 단계가 다른데, 인생은 어떻겠는가. '비바 라 비다'(인생이여, 만세)라는 제목의 이 정물화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가 47세로 요절하기 직전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콜드플레이는 프리다 칼로의 불굴의 강인한 삶에 영감을 받아 같은 제목의 '비바 라 비다'를 작곡했다.

우정아 포스텍 교수[우정아의 아트 스토리],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, 조선일보, 2020.07.14.



하르트만 '키예프의 대문'

19세기의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'전람회의 그림'은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그의 친구 빅터 하트만의 유작전을 보고 그 중 열 개의 작품을 택해 그 인상을 표현한 피아노곡이다. 그 그림과 음악을 맞추어보면 대부분 감상자는 무소르그스키의 이미지의 재현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. 뿐만 아니라 이 열 개의 곡 사이를 이어주는 프로메네이드라는 간주곡에서는 고인이 된 친구의 그림 사이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는 감성마저도 음악으로 느낄 것이다. 후에 프랑스 작곡가 라벨은 관현악 편곡을 통해 한층 더 '전람회의 그림'을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로 색채화하고 시각화하는데 성공하였다. 제10곡 키예프의 대문은 당당한 거인의 발걸음 같은 선율로 장엄하며 하르트만과의 추억을 마무리하는 듯 웅장한 곡이다.